

자주국방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사단

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3월 5일 창립 24주년을 맞이하였다.

우리 나라 방위산업 태동기에 창립되어 대부분의 주요 무기체계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내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주 국방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설립 배경

1970년대초 정부는 국내외 안보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자주국방태세 완비를 위한 방위산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방위산업 육성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정밀공업을 하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우리의 국방은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로”라는 기치아래 사명감으로 앞장서 방위산업에 동참하였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에 따른 조직 및 기반의 취약함은 물론 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취약한 기반과 제도의 미비는 방위산업을 개발하는 업체와 이를 지도하는 정부간에 의견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개별 업체의 활동으로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정부에 전달하기 어려웠을 뿐만아니라, 업체간의 이해상반 문제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날로 가증되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업체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해상반되는 제반 애로사항을 타개·조정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기구의 필요성을 야기하였으며, 1975년 6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군수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방산협회 설립이 구체화되게 되었다.

동년 10월 26일 정부 주관하에 50개 방산업체 대표가 참

석하여 회의를 가졌으며, 이 회의에서 방위산업(당시 정밀공업) 촉진에 관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당면한 업체 애로사항을 통한, 조정 타개함으로써 방위산업 육성 촉진과 자주국방체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의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7인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전권을 위임함으로써 본격적인 창립준비에 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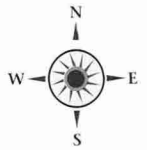
이후 3차에 걸친 창립준비위원회 회의에 의거, 1976년 1월 15일 49개 방산업체 대표와 국방부, 상공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한국정밀공업진흥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2월 18일 국방부 허가 제55호로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월 25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의 제216호로 등기를 마쳤으며, 3월 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발족을 선언함으로써 회원 44개사로 이루어진 ‘한국군수산업진흥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1979년 3월 5일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의 30에 “방위산업진흥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게 되었으며, 명칭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일반 현황

방진회는 정부로부터 투자, 재투자 또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타 정부산하단체와는 달리 회원사의 회비와 정관에 명시된 사업비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순수 민간 단체로, 정부가 지정한 78개 방산업체를 정회원사로 하고 있으며, 방산수출업체 및 용역기관 등 58개 업체 및 단체가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기수입 비리와 관련하여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무역대리점은 본 방진회와 무관하다.

방진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전회원이사가 참여하는 총회



와, 19인 이사와 2인의 감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하여 모든 주요 사항이 결정되며, 상근부회장 이하 40명의 임직원이 방산진흥본부, 보증사업본부, 기획관리실로 편성되어 맡은 바 사업을 팀제로 수행하고 있다.

■ 기본 사업

방진회가 수행하고 있는 기본사업은 아래와 같다.

-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의 수립
- 방산 육성지원업무의 통합 조정
- 관련법규 및 제도의 연구 보완
- 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타개책 강구
- 기술자료 수집 및 정보교류
- 방산계약이행보증, 지급보증 및 육성기금 대출보증
- 수출입 업무의 조정 및 해외협력 지원
- 보안업무의 지도 및 조정 지원
- 회원 상호간의 분쟁 또는 이해 상반문제의 조정
- 관련부처 위임 및 지시사항에 대한 조정 시행

또한 상기 기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회원사가 참가하여 방산관련 정책을 토의하며, 정기적으로 분야별 업체대표가 참가하여 업계 애로 및 문제점을 토의하고, 기타 정책간담회, 임원간담회 등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있

으며, 총포·탄약·기동·함정·통신전자·항공유도 등 8개 분야별 부회를 구성하여 관련업체간 정보교류와 업무협조, 공동 문제점에 대한 타개책 강구 등을 논의하며, 고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의 자문을 받아 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보증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보증기금운영위원회, 회원사 노사협력증진 및 노사분규 대책 강구를 위하여 노사안정대책위원회, 본 <국방과 기술>지 발행 등을 위한 발간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있다.

또한 방산물자 수출과 해외점단기

술 이전 등을 목적으로 한·미 방산협의회, 한·프랑스 방산위원회, 한·이탈리아 방산협의회 등을 구성, 연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방산전시회 참가 등 해외시장개척에도 주력하고 있다.

■ 맺는 말

방진회는 정부와 방산업체의 중간에서 방산관련 정부시책을 회원사에 전파하고, 또한 방산업체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여 방산업체의 권익옹호와 애로를 대변하며,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의 3에 명시된 정부 위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필요시 방산업체간 이해조정을 하고 있다.

간혹 해외방산업체로부터 주요군사장비 판매를 위탁받아 대정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역대리점을 방위산업체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방진회 회원사인 방위산업체는 정부로부터 지정된 방산물자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이며, 무역대리점은 방산업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현재의 국내외 안보환경은 방위산업의 육성·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나 우리 방산업계는 정부의 관심 저조와 국내 소요물량 부족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

지난해 6월 방산업체 대표단이 제2차 한·이탈리아 방산협의회를 통해 양국간 다각적 사업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방산부품·소재 국산화 방안 토론회

방위산업 내실화와 국제화를 위한 필수기술 공감대 형성



한국

방위산업학회(회장·황동준) 정기총회 및 방산 품목·소재 국산화 방안 토론회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후원하에 지난 3월 17일 캐피탈호텔에서 방산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배일성 상근부회장은 축사에서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완제품 중심의 경쟁구조가 부품·소재 중심의 경쟁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부품 소재 부문이 신기술, 신제품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

다"며, "방산업체에서는 IMF 이후 매년 물량의 감소를 극복해 보고자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으나 명확한 국산화 정책의 결여, 담당기관의 빈번한 이관, 담당자의 적극적인 지원의 부족 등의 요인으로 개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경제적인 군 운영과 미래전 준비를 위해서는 부품·소재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시기를 인식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경민 한양대 교수의 「국산화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한 기조 발표와, 남민석 산업자원부 과장의 「2000년도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장세풍 한국로스트웍스 사장의 「부품 국산화 개발에 따른 현실태 및 문제점」의 발표가 있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방부의 국산화정책 발표가 빠져 아쉬움을 남겼고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권순범 국방품질관리소 실장과 민영기 삼성토탈 CSF 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참석자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방산관련 우수 논문 선발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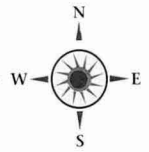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3월 4일 국방관련 학교기관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방산 관련 우수 논문을 선발해 시상하였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 논문은 국방대학교 김호열 소령의 「국방 획득체계 개혁에 관한 연구」와, 국방대학교 엄경호 소령의 「대러시아 무기체계 국제 협력에 관한 연구」로 상패와 부상을 각각 수여받았다.

우수논문 선발 및 포상은 자주국방의 핵심분야인 방위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상황에 부합된 방위산업으로의 육성, 발전을 위해 학술적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선발 대상 논문 분야는 방위산업 중·장기 육성정책 분야,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분야, 방위산업 국제협력 분야, 방위산업 당면과제 해결 분야 등이다.



육군 전력증강 추진방향 공개 설명회

업체에 개발소요 제공해 방산물자 생산향상에 기여

육군 은 3월 10일 계룡대에서 최초로 장차 지상전에서 요구되는 무기 및 장비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개 설명회는 육군이 지난해 실시한 무기체계 소개업무 개선토론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받아들여 기동, 기갑, 포병, 항공 등 11개 기능의 발전방향과 첨단 무기체계 정보를 방산업체 및 군구역 대리점 실무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육군은 앞으로 무기체계 소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무기체계 소개 신청요령과 지상 무기 및 장비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문의에 대한 답변 등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육군의 전력증강 추진방향 공개 설명회는 국내방산업체의 개발소요를 제공하여 방산물자 생산향상에 기여하고 육군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한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1개 기능발전방향

분 야	발 전 방 향	분 야	발 전 방 향
기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거리 및 전술적 운용 극대화를 위한 대규모 박격포 장기적 확보 현용 전술차량 성능개량, 신무기 탑재 가능한 기동체계 확보 각개병사의 방호력 및 전투력 증대 위한 통합 병사체계 개발 	군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위주 보급지원체계 기동화 정비지원(움직이는 공장개념) 제대별·축선별 통합수송체계
기 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동력, 화력, 방호력 향상된 차기전차 개발 차기전차와 협동작전 가능한 장갑차 요구 조종, 포술, 전술모의훈련장비 개발 전력화 	정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 전자전장비의 자동화 및 광대역 탐지능력구비 저고도·중고도 UAV 확보필요 지상감시장비(TOD) 경량화
포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지레이더 탐지거리 및 정확도 향상 관측장비의 주·야간 자동화 표적획득/측시 사격지휘 화포간 데이터통신연동체계 구축 정밀타격체계 개발 지능포탄에 의한 파괴력 증대 	통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IDER 성능개량(데이터 지원능력 향상) 3차원(방위각, 고각, 거리) 탐지레이더 확보
항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화 사격체계발전 주·야간 정찰 및 공격작전능력을 보유한 다목적 헬기 사거리 및 명중률 증대(Hell Fire System) 장거리 정밀항법능력 향상(DNS GPS 장착) 	방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지로부터 타격까지 자동화체계 구축 필요 GUN+SAM의 복합무기 요구 일반용, 전차용, 항공용 방독면 기능을 통합한 다기능 방독면 필요
포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격극복장비의 가설길이 및 통과하중 증대 도하지원장비의 자주화 및 경량화 추진 원격지뢰탐지체계/영상지뢰탐지체계 지뢰지대를 탐지, 돌파/소탕, 통로표지의 복합체계발전 	화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거리 화생방 정찰체계 구축 헬기용 제독장비 및 열형제독체계 개발 적외선 및 전자파 차단 가능한 발사연막체계 정밀항법장비에 의한 정밀침투수단 확보 감시장비의 고성능, 경량화, 다기능화 필요
		특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지원의 장거리 및 광역화/자동수신체계 구축 은밀타격장비 및 폭약, 폭파장비의 고성능화 해안 감시레이더 자동제원산출 및 탐지/식별능력 향상

6·25 전쟁 50주년 기념행사 펼쳐…

전쟁의 교훈 계승과 전후세대 국가관과 안보의식 고취

2000

년은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는 해이며 또한 6·25 전쟁 발발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휴전후 반세기가 지났지만 한반도는 남북 분단의 비극이 지속되고 있으며 6·25 전쟁은 동족상잔의 차원을 넘어 세계 공산세력의 예봉을 꺾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전쟁이었으며 공산독재체제에 맞서 싸운 최초의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총궐기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6·25 전쟁 3년을 재조명하여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후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며 감사와 위로로 국민화합을 달성함은 물론, 참전 우방 21개국에 신의를 재다짐하는 계기로 삼아 세계 속에 한국위상을 제고하며 국가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국민과 함께, 참전국과 함께하는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훈령 제384호('98. 7)를 제정하여 국무총리자문기구로 기념사업 위원회(위원장 백선엽 예비역 대장)를 구성하고 주관 부서인 국방부는 기념사업단을 편성하여 정부부처와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계, 언론계, 6·25 참전단체와의 토의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의견을 취합, 6·25 전쟁 50주년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완성하였다.

이처럼 범국민적이고 국제적인 행사로 추진되고 있는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은 “분단 50년, 희망의 새 천년”을 주제로 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으로 구분하여 과거는 6·25 전쟁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전쟁의 아픔과 슬픔을 회상하며 참전 용사를 추모 선양하고, 현재는 국난 극복의지 및 역량을 결집시키고 6·25 전후세대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전쟁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미래는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속에 한국의 신인도를 제고시켜 세계로의 도전과 미래창조에 기여하는데 기본개념을 설정하였다.



■ 사업목적 및 방향

사업목적은 6·25 전쟁 50주년을 계기로 6·25 전쟁의 의의가 국가방위는 물론 공산세력의 적화외도를 참전국과 함께 저지한 「세계 자유수호 전쟁」임을 부각시키고, 노령화된 국내·외 참전 용사의 공헌 및 희생에 대한 감사와 명예를 선양하며, 전후세대에게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화해, 통일, 번영지향의 이미지 고양에 두었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념사업은 6·25 전쟁발발 및 휴전협정 조인 50주년이 되는 2000. 6. 25부터 2003. 7. 27까지 기념행사를 지속 추진한다.

둘째, 기념사업은 참전용사 명예고양 및 안보의식 고취, 국가 이미지 개선 분야로 계획하여 6·25 전쟁의 의미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셋째, 사업을 국가 주요사업, 정부부처 사업, 지자체 사업으로 구분, 국내·외 주요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넷째, 참전우방 21개국에 대한 감사와 신의로 유대강화 및 국가 신인도를 제고시킨다.

다섯째, 6·25 전쟁 기념비 및 전적지는 내·외국인의 견학과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여섯째, 사업규모는 국가경제를 감안, 의의는 극대화시키고 소요예산은 최소화 하도록 설정하였다.

■ 사업계획

6·25 전쟁 50주년 의의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주요사업 10개, 부처별 사업 42개 등 총 52개 사업을 설정하였으며 기타 연계적으로 실시해 오던 기존사업은 관련부처 및 단체(지자체)장 책임하에 시행토록 하였다.

* 주요 10대 사업 내용

- 6·25 전쟁교훈 계승
- 6·25 전쟁 50주년 상징 조형물 건립
- 참전용사 복지시책 확대

- 전후세대를 위한 호국안보 교육 사업
- 6·25 전쟁 50주년 중앙기념식
- 서울수복행사
- UN묘지 추모행사
- PEACE EXPO-2002
- 세계평화 선언
- UN/해외홍보

* 부처 사업내용

- 참전용사 명예선양 및 위로행사 (지역·학교)
- 전자자 유해 발굴 안장
- 전쟁 영웅 현양 행사
- 전적지 정화
- 참전 수기 및 호국 문예물 공모
- 청소년 호국 행사
-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
- 낙동강 반격작전 기념행사
- 6·25 순회 전시회
- 육·해·공군 전투기념 행사
- WAR-TECH 2001 박람회
- 세계평화 마라톤 대회
- 국제 학술세미나
- 홍보사업
- 미국 관련 사업
- 참전국 관련 사업

